

본 자료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(ansancci.korcham.net) > 새소식 >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음.

안산기업 86.7%, '미국-이란 군사충돌, 기업경영 환경에 영향'

- 안산기업 82.7% "매출 감소 예상"...79.8% "영업이익도 줄어듦 것"
- 안산기업 61.6%, "향후 3개월 내 생산량 차질 우려"
- 기업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정책...'수출입 물류비·보험료 지원 확대'

안산상공회의소(이하 안산상의)는 2026년 3월 4일부터 11일까지 안산지역 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『미국-이란 군사충돌로 인한 안산기업 피해 실태 및 긴급 대응 조사』 결과를 발표했다.

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86.7%가 미국-이란 군사 충돌이 기업경영 환경에 '영향이 있다'라고 응답했으며, 13.3%는 '영향이 없다'고 응답하였다.

현 사태로 인하여 올해 매출 감소를 예상하는 기업은 82.7%로 가장 많았으며, '영향없음' 16.3%, '오히려 매출 증가 예상' 1.0% 순으로 응답했다. 한편, 올해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'영업이익 감소 예상'이 79.8%로 나타났으며, '영향 없음' 20.2%로 조사됐다.

향후 3개월 내 생산량 차질 여부에 대하여 61.6%가 '생산량 감소'를 예상한다고 응답(△10% 미만 감소 55.8%, △10% 이상 감소 5.8%)했으며, 이어 '영향 없음'과 '해당 없음'이 각각 19.2%로 나타났다.

중동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'일부 반영 가능'이라는 응답이 54.8%로 가장 많았으며, '해당 없음' 27.9%, '거의 불가능' 17.3% 순으로 나타났다.

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으로는 '수출입 물류비·보험료 지원 확대'가 40.4%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, 이어 '긴급 경영 안정 자금 및 대출 금리 인하' 37.5%, '대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' 22.1% 순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안산상의는 안산지역의 경영 환경 개선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경제동향, 경기전망지수(BSI) 등 각종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. 관련 문의는 안산상의 회원조사팀(T. 031-410-3030 / 내선 247)으로 하면 된다.

※ <붙임> 『미국-이란 군사충돌로 인한 안산기업 피해 실태 및 긴급 대응 조사』 보고서 1부. 끝.